

산은 많으나 짐승이 없다 한국축산 계속 발전가능성 있어

남 두 희
(월간양계 편집과장)



△ 세계 축산학회(WAAP)
커닝 햄 회장

제3차 AAAP 서울대회가 5월 6일부터 5일간 워커히에서 개최되어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수참석해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효율적인 가축생산에 의한 아세인들의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술 및 가축기술정보를 광범위하게 교환하였다.

본지는 대회기간중인 지난 5월 9일(목)워커히 AAAP 회장실을 방문 이번 대회에 특별히

초빙된 세계축산학회(WAAP) 회장 커닝햄박사(E.P.Cunning Ham)박사(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수, 유전육종학전공) 만나 세계축산의 발전방향과 이번 대회의 성과 및 한국축산의 객관적인 느낌을 문의해 보았다.

이자리에는 커닝햄 박사외에 조병희박사, 힐박사, 캄벨박사, 밴 소스트박사 등 세계적인 축산학자들이 바쁜 일정중에도 함께 참석하여 우리나라 축산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통역은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장 한인규박사가 수고해 주었다. 대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본다.

한국축산발전 경이적

세계축산학회장 커닝햄박사는 세계축산은 지난 20년간 급성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업의 첨단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한국축산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데 비해 그 성장도는 대단하다. 대회기간중 축산

시험장과 국립종축장을 돌아보았는데 시설 및 관계자의 연구의욕이 대단했다. 젖소의 품질개량, 수정란이식 등은 매우 진보되어 있는듯하다. 한우성장능력은 분명히 외국 비육우에 비해 성적이 떨어진다. 육종학측면에서 외국우와의 교잡으로 합성종육성이 필요하다. 농후사료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유전공학의 축산업에 이용은 단기간에 기대는 안되지만 10~20년후 성비조절, 사료효율개선 등에서 이용이 기대된다.

저질조사료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배울점이 많다고 본다. 유럽 북미 등 축산선진국의 향후 발전템보가 느린데 비해 한국은 앞으로 10~20년 동안 2~3배의 괄목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에 처음 왔는데 효율적으로 일하며 부지런한 국민인 것 같다. 한국의 실정이 쌀농사를 버릴 수 없는것 같으며 복합업종의 축산업이 효율적일 것 같다. 이번 대회에 선진국, 중

진국, 후진국 등 많은 국가에서 참가하여 국제학회의 규모와 한국의 축산에 대한 인식이 높는데 놀랐다. 전시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의 축산수출 가능성을 느꼈다.

한국인은 콜레스테롤 큰 문제가 없다

조병희박사는(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학교수)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해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원인중에 하나임은 틀림없지만 주원인이라고 오도되는 것은 잘못이다. 유전적요인, 성격, 스트레스, 식습관, 담배 등의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영양학자들은 동맥경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식품, 나이(연령)등과 관련이 많아 미국에서는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는다.

콜레스테롤은 꼭 나쁜측면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체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다만 과잉이 문제이다. 동물성식사를 주로하는 미국 등에서는 필요량의 2배 이상을 섭취해 문제가 되지만 동양권의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는 곡류, 채소를 많이 먹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밖에 동물성단백질에 대해 인체영양학자 힐박사(F. W. Hill, 미국 캘리포니아대)는 미국, 유럽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잉섭취로 낭비요소가 있으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에서는 질적



인 부족현상이 있다. 특히 아동, 임산부, 성장기의 사람들에게는 질적으로 우수한 동물성단백질 공급이 필요하다. 단백질외에도 미량광물질(철, 아연, 칼슘 등...)의 공급을 위해 더 많은 우유와 육류섭취를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산지초지개발, 벼짚사료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어느 민족이나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기 위해 산지에서 먹을 것을 얻는것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다. 한국의경우 산은 있으나 짐승이 없다. 산지가 63%인데 이는 바로 초지이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산지개발 뿐이다.

초지조성시 제초제를 쓰는것보다는 나무를 베지않고 면양등을 이용한 생화학적 방법이 바람직하다(M. H. Campbell 박사; 산지초지전문가).

벼짚처리 세계첨단 수준

벼짚암모니아처리는 좋은 기술이다. 이분야에 관한한 한국은 세계의 선진국이다. 실제로 농가에서 이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용성이 높은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료에 당분(전분)이 있는데다(벼짚에 알곡이 붙어있든경우) 암모니아처리하면 독신이 생겨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저온에서 벼가 개화한 벼짚은 위험하다고 본다. 50%미만 수준에서 이용하면 문제없다고 본다.(H. B. Perdock박사)

일반적으로 저질조사료를 암모니아나 가성소다 처리시 광물질을 첨가해야 한다. 섬유소로 벼짚이 그렇게 좋은것만은 아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에서도 보지 못하던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보았다. 한국인의 축산수준이 높은것에 대해 놀랐다.(P. J. Van Soest)